



‘샤블리 지역 대표 와이너리 도멘 롱 드파키’

도멘 롱 드파키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레 바이옹

Domaine Long-Depaquit Chablis Premier Cru Les Vaillons

지역	프랑스 > 부르고뉴 > 샤블리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3.03%	용량	750ml
등급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시음 적정 온도	10-13℃
테이스팅 노트	산도와 미네랄감의 균형이 매우 잘 잡혀있어 입 안에서 싱그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드러우면서도 긴 피니쉬를 느낄 수 있다. 풍성한 꽃 향기와 과일의 풍미를 약간의 오크 느낌이 뒷받침하여 복합적인 향기가 난다.		



제품설명



레 바이옹은 샤블리 지역의 세렝강 좌안에 위치한 1등급 포도밭으로, 페루아가 주는 영향을 가장 표현하는 지역이다. 발방 계곡 경사면의 중심에 위치한 레 바이옹에서 생산된 와인은 점토질의 석회암 토양으로부터 잘 오는 미네랄감이 뛰어나며 효모침전물(Lees) 숙성으로 풍부하면서도 부드러운 미감을 보인다. 또한 90% 비율로 스테인리스 스틸 통과 10% 비율로 사용된 오크 배럴에서 숙성해 복합적인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수상내역



2022빈티지 버그하운드 Burghound.com 91점
2022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2점
2021빈티지 버그하운드 Burghound.com 93점

와이너리



1831년 Bernard Bichot에 의해 설립되어 가족 소유로 경영되어 온 알베르 비쇼(Albert Bichot)는 현재 6대째 자손인 알베릭 비쇼(Alberic Bichot)가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부르고뉴 와인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베르 비쇼는 부르고뉴 지역 4위의 업체이다.
매출의 70%를 전 세계 100여개 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부르고뉴 지역의 수 많은 와인들을 우수한 품질로 생산해내고 있는 노하우에 기반한다
알베르 비쇼는 총 6개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와인메이커가 각각 다른 와이너리에서 각각의 페루아를 고려하여 양조하며, 이것은 알베르 비쇼만의 특별한 철학이다
알베르 비쇼는 스웨덴 왕실 공식 와인 공급업체이며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서빙 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